■ 권중달교수의 역사칼럼<11>

위장래권계(爲將來勸戒)

장래를 위하여 권고하고 경계하노라

권 중 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역사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말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그 중 하나가 대한민국의 건국을 언제로 볼 것이냐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역사문제인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진영(陣營)싸움이다. 말하자면 역사해석을 통하여 자기 진영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이쯤 되면 이들은 겉으로는 역사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주장하는 역사는 역사가 아니라 역사를 이용하여 자기 진영을 유리하게 하려는 얄팍한 정파적 수작이다.

원래 인류가 역사에 관심을 갖고 이를 중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자치통감의 찬자(撰者)인 사마광이 말했듯이 지난 일을 남김없이 기록하여 실패한 이유를 찾고, 성공한 일을 이어받으려는 실용성(實用性)에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있는 대로 기록하여야 이를 읽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이러한 실용성 때문에 아마도 역사기록은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연면히 이어지는 것이다.

북위(北魏)의 태무제(太武帝)는 동북아시아 대륙의 북부지역을 다 통일하였다. 남쪽으로는 별로 힘도 없는 송(宋, 劉宋)만 있을 뿐 양자강 유역을 빼놓고 그 북쪽을 다 통일한 것이다.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자기 선조의 위대한 역사를 기록해 놓고 싶었다. 그래서 최호(崔浩)에게 책임을 맡겨서 ≪국기(國記)≫를 짓게 하였다.

그러면서 부탁까지 하였다. '힘써 사실을 좇아서 기록하시오.' 맞는 말이었다. 역사란 자기에게 유리하건 불리하건 상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써야 그것을 쓰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를 지시한 북위의 태무제는 옳은 지시를 한 것이다.

이 지시를 받은 최호는 이 말에 따라서 아주 열심히 썼고, 하다 못해 황제의 집안 내력까지도 있는 사실대로 직필(直筆)하여 사실(史實)로 썼다. 그 결과 정말로 잘 쓰인 역사라고 생각하고 이를 좀 더 많은 사람이 읽게 하려고 그 내용을 돌에 새겨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세워두자고 하였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커다란 돌을 구해 오고 또 이를 새겨서 거리에 세웠다.

사실 최호는 북위의 선조들이 한 일을 서술하면서 아주 자세하고 진실 되게 썼다. 그런데 현재 북조를 이룩한 그들의 선조는 야만적인 일들도 했는데, 이것조차도 다 쓴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현재 부귀영화를 누리는 귀족들에게는 부끄럽게 생각되는 것들이었다.

이 기록을 보게 된 북쪽 출신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숨기고 싶은 역사를 다 써버린 것에 화를 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태무제는 불같이 화를 냈다. 지시할 때에 직필(直筆)하라고 하였지만 돌에 새겨진 이 기록을 보고 화를 낸 것이고 그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이때 최호의 지휘를 받아서 이 역사를 쓰는 데 참여한 사람 가운데 고윤이 있었는데, 그는 마침 태자의 스승이었다. 태자는 자기 스승에게까지 필화(筆禍)가 미칠 것을 걱정하여 아버지인 태무제에게 간청하여 면하게 해주었다.

물론 그 총 책임을 진 최호는 사형(死刑)에 처해 졌다. 뿐만 아니었다. 태무제는 조서를 내려서 청하(淸河, 산동성 임청시) 최씨와 최호의 같은 집안사람들은 먼 친척이든 가까운 친척이든 상관없이 죽이고, 최호와 인척인 범양(范陽, 하북성 탁주시) 노씨(盧氏)·태원(太原, 산서성 태원시) 곽씨(郭氏)·하동(河東, 산서성 영제현) 유씨(柳氏)도 아울러 그 종족을 없애도록 하고, 나머지는 모두 그 자신만을 죽이는데 그쳤다.

최호가 잡혀서 함거(檻車)에 실려서 사형장인 성의 남쪽으로 보내는데, 위사(衛士) 수십 명이 그에게 소변을 누었다. 아마도 권력자가 그리하라고 시키지 않았을까? 안에서는 소변 세례를 받은 최호가 '어어'라고 소리치는 것이 통행하는 길에서 들렸다. 역사를 직필한 대가가 너무도 큰 셈이다.

후에 태자의 도움으로 살아남게 된 고윤은 역사를 쓰는 이유를 말하였다. "무릇 역사라는 것은 인주(人主)의 선악을 기록하여 장래를 위해 권고하거나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주는 두려워하여 꺼리는 바가 있게 되어 그의 행동거지를 신중히 하는 것입니다."역사를 쓰는 이유가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 없는 임금을 두렵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다.

태무제는 자기 자랑할 것이 못되는 자기 선조들의 행적을 곧이곧대로 썼다고 화를 내고 이 사실을 쓴 사람을 죽였다. 말로는 역사를 직필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정작 자기의 부끄러운 역사 사실은 숨기고 싶었으니, 그가 직필하라고 지시한 것은 그저 말로만 했을 뿐이었다.

태무제가 직필한 최호를 죽였지만 그렇다고 그 선조들의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역사를 자기편으로 쓰지 않았다고 화를 내고 살육한 태무제의 만행만 덧붙여져서 1천 5백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지금 자기들의 진영을 위하여 역사를 자기편에 유리한 부분만 가져다가 해석하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영향력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백 년 후에 후손들이 무엇이라고 평론할지 생각이나 해 봤는지 궁금할 뿐이다. 진정으로 역사의 엄정함을 외면한 채 얄팍하게 역사를 이용만 하려 한 무식함이 송두리 채 드러나지 않겠는가?

한문대강과 사물잠

한문대강(漢文大綱)은 애산(愛汕) 권중구(權重求, 검교공파 32세, 1914~1977) 선생이 초학자용 입문서로 저술한 책이다. 그런데 책의 구성과 내용이 예사롭지가 않다. 한마디로 대작이다. 1971년에 나온 책이다. 대작이 그냥 묻혀 있는 것이 안타까웠는지 2011년에 이명학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가 재발간했다.

수백 개의 한문 문장을 실례로 들었다. 특히 영어의 문장과 비교하여 한문 문장 구조를 주어 동사 목적어 등으로 설명한 것은 현재 독서층에 안성맞춤이다. 이런 설명은 요즘 들어 한문에도 문리가 트이고 영어도 잘 아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애산 선생은 50여년 전에 이미 사용했다는 데에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확실히 옛사람들의 뜻이 크다. 지금은 이렇게 종합적인 책을 출간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애산 선생은 한문을 전공하거나 한학을 수학하지는 않았다. 집안에서 전해져오는 가학(家學)으로 한문을 익혔다고 한다.

애산 선생은 서울중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성전문학교 상과를 졸업한 후 중동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다 대창중학교 교감을 역임하였다. 모교인 중동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한문을 가르쳤다고 한다.

옛말에 독서백편의자현(讀書百遍意自見)이라는 말이 있다. 책이나 글을 백 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이해된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구태의연한 방식이다.

저자 애산 권중구

그러나 애산 선생은 한문의 문장을 문법 중심으로 하고 단어, 자구, 단문, 문장 등을 읽으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풀이한다. 애산 선생은 권태강 검교공파회장 부친이다.

애산 선생은 자식들에게는 사물잠(四勿箴)을 직접 써서 큰 병풍으로 남겨 주었다. 집안의 가보이다. 병풍을 보면 애산 선생이 살아 계시는 듯하다.

안연이 공자에게 극기복례의 조목을 묻자 공자가 비례물시(非禮勿視 : 예가 아니거든 보지 말고), 비례물청(非禮勿聽 : 예가 아니거든 듣지 말고), 비례물언(非禮勿言 : 예가 아니거든 말하지 말고), 비례물동(非禮勿動 : 예가 아니거든 행동하지 말라)을 말했다. 정이천이 이것을 근거로 보고(시視), 듣고(청聽), 말하고(언言), 행동(動)하는 것에 대해 각각 경계하는 말, 즉 잠(箴)을 지었다. 이것이 사물잠이다.

편집국장 권행완

1. 視箴(시잠)

心兮本虛(심혜본허) 마음이란 본시 비어 있으니
應物無迹(응물무적)
외부 사물에 반응하면서도 흔적은 없다.
操之有要(조지유요)
마음이 그것을 바르게 잡아두는 것에 요령이 있고,
視爲之則(시위지칙)
보는 것이 그렇게 하는 법칙이 된다.
蔽交於前(폐교어전) 눈앞이 이리저리 가리워지면,
其中則遷(기중칙천) 그 속마음은 곧 옮아가게 된다.
制之於外(제지어외) 외부에 대하여 제어함으로써
以安其內(이안기내) 그 내부를 안정시켜야 한다.
克己復禮(극기복례)
자신을 극복하고 예로 되돌아가게 한다면
久而誠矣(구이성의) 오래도록 성실하게 될 것이다.

2. 聽箴(청잠)

人有秉彝(인유병이)
인간에게는 꼭 지켜야 할 떳떳함이 있으니
本乎天性(본호천성)
그것은 천성에 근본을 두는 것이다.
知誘物化(지유물화) :
다만 사람의 지각이 사물의 변화에 유인되어
遂亡其正(수망기정) :
그 올바름을 잃게 되는 것이다.
卓彼先覺(탁피선각)
탁월하였던 저 선각자들은
知止有定(지지유정)
지각을 선의 경지에 머물게 하여 안정시켰다.
閑邪存誠(한사존성)
사악해짐을 막고 성실한 마음을 존속시켜서
非禮勿聽(비례물청)
예가 아닌 것은 듣지도 말라 하느니라.

3. 言箴(언잠)

人心之動(인심지동)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은
因言以宣(인언이선)
말을 근거로 하여 밖으로 선포되나니,
發禁躁妄(발금조망)
말을 할 때 조급하거나 경망스러워지는 것을 막아서
內斯靜專(내사정전)
속 마음은 고요하고 한결같게 된다.
矧是樞機(신시추기)
하물며 이것은 사람들의 중요한 계기를 만드는 것이니,
興戎出好(흥융출호)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호로 나아가게도 한다.
吉凶榮辱(길흉영욕) 사람의 길흉과 영욕은
惟其所召(유기소소)
오직 말이 불러들이는 것들이다.
傷易則誕(상이칙탄)
말을 지나치게 쉽게 하면 불성실하게 되고,
傷煩則支(상번칙지)
지나치게 번거롭게 하면 지리멸렬하게 되고,
已肆物忤(이사물오)
자기 멋대로 말하면 사물과 어긋나게 되고,
出悖來違(출패래위)
도리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 위배된 보답이 오게 되니,
非法不道(비법불도)
법도에 어긋나는 것은 말하지 말고,
欽哉訓辭(흠재훈사)
이 교훈의 말들을 공경하리로다.

4. 動箴(동잠)

哲人知幾(철인지기)
명철한 사람은 일의 기미를 알아서
誠之於思(성지어사)
그것을 생각함에 정성스럽게 하고,
志士勵行(지사여행)
뜻있는 선비는 행동에 힘써서
守之於爲(수지어위)
올바른 도리를 지키는 일을 실천한다.
順理則裕(순리칙유)
올바른 이치를 따르면 여유가 있게 되나,
從欲惟危(종욕유위)
자기 욕망을 따르면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造次克念(조차극념)
다급한 순간이라도 이것을 잘 생각하여,
戰競自持(전경자지)
두려워 조심하면서 스스로를 지탱하라.
習與性成(습여성성)
습관이 본성을 따라 이룩되면,
聖賢同歸(성현동귀)
성현들의 경지에 같이 귀착하게 된다.

애산 권중구선생이 직접 쓴 사물잠 병풍

權紀 1100년의 역사 재조명 사업

대종회에서는 권기 1100년의 역사를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국가에 큰 공적을 세운 역사적 인물, 3정승 6판서, 청백리 등과 안동권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권문의 위상을 드높인 현조들의 사료를 모아 '權紀 천년사' 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자 합니다. 100만 족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각 파종회에서는 각 파의 현조들이 빠짐없이 기록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편집회의 : (1차)2019년 6월 24일 11시, 장소 : 대종회 ○ 사업기간 : 2019년 7월 ~ 2020년 3월(9개월)

○ 사업담당 : 편집국장 권행완

○ 작성예시

권기	단기	서기	문중사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호/성명	파	관직명	주요 사건 및 공적	묘소			
1		930	권행權幸	시조 태사공	삼한벽상삼중대광 아보공신	안동권씨 득성(得姓)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산11번지	서경에 학교창설		
6		935						신라항복(멸망)		
7		936						고려통일,후백제멸망		
21		950							요나라 건국	
29		958						광종 과거제도 실시		
31		960						백관의 공복 제정	송나라 건국	폴란드왕국 건국
33		962								신성로마제국 성립

※표기시 한자 병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 병기 가능합니다. 각 파종회에서는 문중사가지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권해옥